

여수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인해 지역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며, 여수시의 조속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이자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생산량 감소, 투자 축소, 정기보수 물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협력업체의 일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휴업과 휴직, 근무 일수 감소, 임금 감소는 물론 계약 종료와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와 플랜트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충격을 가장 먼저 받고 있으며, 청년 노동자의 지역 이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결국 지역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기업과 노동자,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국가적·산업적 위기입니다.

장기화되는 산업 침체는 고용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시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수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역의 일자리를 지키고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뜻을 함께하여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 여수시를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특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여 연쇄적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직 및 휴직 노동자를 위한 직업훈련, 전직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의 위기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을 지탱해 온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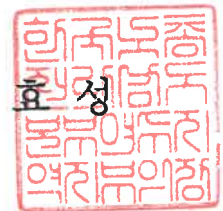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여수의 절박한 현실을 깊이 헤아려 조속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8월 7일

한국노총여수지역지부

의장 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여수시지부

지부장 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여수지부

지부장 김

